

Collective Intelligence :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집단지성 :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THE 19th
WORLD
KNOWLEDGE
FORUM

제 19회 세계지식포럼

2018. 10. 10(수)~12(금) 장충·신라호텔



Message from the Chairman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Sae-whan Chang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19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지식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지원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최고 글로벌포럼으로 우뚝 선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도전으로 포럼의 품격을 높여가며 글로벌포럼의 역사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전 세계의 화두와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포럼의 표준을 만들어내며 명품포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올해도 그동안 그 어떤 포럼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지식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대혼란(Pandemonium)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질서가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혼란을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초창기부터 지식의 공유만이 인류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는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올해 각 분야의 파워엘리트와 글로벌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이 세계지식포럼에 모여 세계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집단 지성을 통한 최고의 지식정보와 인사이트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절차안내

- ※ 제19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참가신청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 ※ 등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1. 온라인 참가신청 절차



2. 참가비 안내 (부가세 포함)

구분	조기등록 (~ 8월 31일)	일반등록 (9월 1일 ~ 9월 28일)
일반	₩ 2,970,000	₩ 3,300,000
할인(50%)	대학생, 장애인(1~3급) ₩1,650,000	

제19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 2018년 10월 10일(수) ~ 12일(금)

장소 : 장충 · 신라호텔

- ◆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신청은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 ◆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28일까지로, 일반등록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 참가자에게는 중식(3회), 만찬(1회)이 제공됩니다.
- ◆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등록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 참가비에 숙박요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Tel : 02-2000-2620~3 Fax : 02-2000-2626
E-mail : wkf_reg@mk.co.kr



THE 19th WORLD KNOWLEDGE FORUM

세계지식포럼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0년 10월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총 4,000여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4만 3,0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레르영민 아세안(ASEA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폴 케네디, 마이클 포터, 프란시스 후쿠야마, 조셉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 19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는 250여명의 연사와 3,500여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집단지성 :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Collective Intelligence :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재닛 옐런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케르스티 칼룰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아란차 곤잘레스 국제무역센터(ITC) 사무총장 등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허버트 맥마스터 제26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도 참가합니다. 장야친 바이두 총재, 라지브 수리 노키아 최고경영자, 케네스 프레이저 MSD 최고경영자, 존 김 뉴욕생명보험 대표, 쉰제 씨트립 최고경영자, 왕정화 춘추그룹 회장, 에릭 엘리슨 우버 항공사업 대표 등 혁신을 이끄는 기업 리더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The 1st World Knowledge Forum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The 2nd World Knowledge Forum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The 3rd World Knowledge Forum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The 4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The 5th World Knowledge Forum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The 6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 Foundation for the New Era

The 7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e Economy

The 8th World Knowledge Forum
Wealth Creation and Asia

The 9th World Knowledge Forum
Collabonomics & Greater Asia

The 10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The 11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The New Economic Crisis :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
Leadership, Integrity, Creativity and Happiness**

The 14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etamorphosis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Mapping the Zeitgeist

The 17th World Knowledge Forum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



집단지성 :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Collective Intelligence :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최근 세계 정치·경제·사회 모습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계(視界) 제로'상태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시리아 사태, 급증하는 난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들은 다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팬더모니엄(Pandemonium)'은 영국 시인 존 밀턴(1608~1674)의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에 나오는 악마의 소굴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정학 문제, 무역 전쟁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혼란과 혼돈은 '팬더모니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올바른 지식과 지혜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제19회 세계지식포럼이 대주제를 '집단지성 :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Collective Intelligence :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간 국경의 장벽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어떻게 지식을 공유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 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지성을 통한 슬기로운 해결책 모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HE 19th WORLD KNOWLEDGE FORUM



1. Smart Investment : The End of Easy Money
2. Big Tech, Big Wave : Tech Renaissance
3. Ein Himmel : A Road Map to the New World
4. Reinvigoration : Upgrade Your Life
5. Overstretch of One Asia

2018

Collective Intelligence :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집단지성 :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매일경제 MBN

Smart Investment : The End of Easy Money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 근원은 미국이다. 호황 국면에 들어선 미국은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며 2%에 진입시켰다. 자국이기주의 · 보호주의는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경쟁 관계인 중국은 물론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 · 캐나다로도 전선을 넓히며 강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시장을 위협하는 탈중앙화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제19회 세계지식포럼은 급격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시장 전망과 함께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모색한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주목할 만한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재닛 옐런 Janet Yellen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재닛 옐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연준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다. 일자리 창출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 의장직을 맡기 전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및 최고경영자로 재임했다. 현재 미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특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존 김 John Kim
뉴욕생명보험 대표

존 김은 미국 최대 규모 생명보험사인 뉴욕생명보험 사장으로 보험 및 글로벌 자산운용 사업을 총괄한다. 취임 이후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존 김은 2008년 뉴욕생명 및 뉴욕생명자산운용에 합류한 이후 2015년에 사장이 되었다.



팀 드레이퍼 Tim Draper
DFJ 회장

팀 드레이퍼는 드레이퍼 어소시에츠(Draper Associates)와 DFJ의 창립자다. 드레이퍼는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일찌감치 간파해 핫메일, 스카이프 등이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드레이퍼는 기업가정신 지지자로서 드레이퍼대학교(Draper University of Heroes)를 설립해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을 배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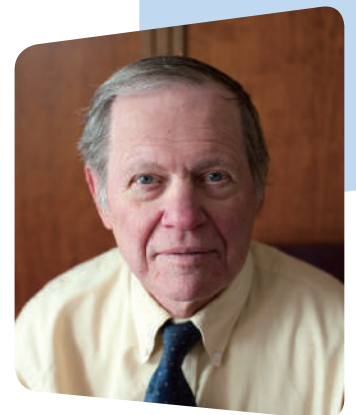


로버트 머튼 Robert Merto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1997년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모형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금융자산관리, 다양한 시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가격 결정, 담보, 파생상품 등 광범위한 영역의 금융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금융 규제와 혁신, 거시 · 금융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리처드 쿠퍼 Richard Cooper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리처드 쿠퍼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다.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의장 등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여럿 맡은 바 있다.



Big Tech, Big Wave : Tech Renaissance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은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핵심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명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큰 기술의 출현을 '빅 테크'로, 이런 기술이 일으킬 변화를 '빅 웨이브'로 정의한다. 이런 격변의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테크 르네상스'로 표현하고자 한다. 구글, 우버, 바이두, 노키아 등 이런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서 미래를 듣는다.



케르스티 칼룰라이드 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

케르스티 칼룰라이드는 1969년생으로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2016년 10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강력한 여성 정치인 중 22위에 올랐다. 에스토니아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개혁에 나설 당시 총리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쑤제 Jane Jie Sun
씨트립 CEO

쑤제는 중국 최대 온라인 관광서비스 기업인 씨트립(Ctrip.com)의 최고경영자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씨트립 최고재무책임자, 2012년엔 최고운영책임자, 2015년엔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쑤제는 2017년 포브스 차이나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도 선정됐다.



라지브 수리 Rajeev Suri
노키아(Nokia) 회장 겸 CEO

라지브 수리는 2014년부터 노키아 최고경영자로서 프랑스 통신업체인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인수를 지휘하는 등 노키아를 변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키아 최고경영자가 되기 전에는 노키아솔루션스앤네트웍스(Nokia Solutions and Networks)의 최고경영자로서 기업가치를 약 10배 높였다.



에릭 앨리슨 Eric Allison
우버 항공사업 대표

에릭 앨리슨은 우버 엘리베이트(Uber Elevate)의 대표다. 우버 엘리베이트는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플라잉 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 담당 부서다. 앨리슨은 우버에 합류하기 전 지닷에어로(Zee.Aero)라는 스타트업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여기서 에어택시 코라(Cora)의 개발을 주도했고, 두 차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현재 미항공우주국(NASA) 항공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에릭 리 Eric Ly
링크드인(LinkedIn) 공동창업자

에릭 리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링크드인(LinkedIn)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다. 2002년 스탠퍼드 대학 동기들과 함께 링크드인을 창업했다. 현재 링크드인은 5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리 CTO는 블록체인 기술이 20년 후 세상을 바꿀 것임을 확신한다. 최근에는 개인 신용도를 블록체인 기술로 평가하는 허브(Hub)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숀 스튜어트 Shaun Stewart

구글 웨이모 사업개발 대표

숀 스튜어트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웨이모 최고비즈니스개발책임자다. 웨이모는 사람과 사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웨이모에 합류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에서 글로벌 숙박시설 임대 총괄을 담당했고, 여행 자문회사인 제트세터(Jetsetter)에서도 최고경영자를 지낸 바 있다.

마르쿠스 빌리그 Markus Villig

택시파이 창업자 겸 CEO

유럽판 우버로 불리는 택시파이(Taxify) 창업자로 유럽 최연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 창업자다. 불과 19세에 이 회사를 창업했다. 포브스 유로에서 선정한 '30세 이하 최연소 기술 CEO'로도 선정됐다. 우버형 차량 공유 사업 외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사업을 결합해 진출 국가마다 주목을 받고 있다.



압둘라 알베야티 Abdullah Albeyatti

메디컬체인 CEO

압둘라 알베야티는 메디컬체인(Medicalchain)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다. 2011년 임페리얼컬리지 런던을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해 왔다. 메디컬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환자들의 의료기록 관리 웹사이트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돕는다.



발레리 바빌로프 Valery Vavilov

빗퓨리(Bitfury) CEO

발레리 바빌로프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기업인 빗퓨리그룹 (Bitfury Group)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라트비아 출신의 바빌로프 CEO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동구권의 연쇄적 경제 몰락을 지켜보면서 암호화폐와 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블록체인이 각광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1년 맞춤형 설계 소프트웨어, 컨설팅 솔루션 및 고급 하드웨어 제공에 집중하는 빗퓨리를 창업했다.



카이지 루살렘 Kaidi Ruusalepp

펀더빔(Funderbeam) CEO

카이지 루살렘은 펀더빔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다. 펀더빔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주식거래 스타트업으로 다른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친동생 타이조 손(Taizo Son)으로부터 200만 유로를 투자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in Himmel : A Road Map to the New World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은 진리다. 오늘날 하나된 하늘은 너와 나를 갈라놓던 어제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현재 국제정세는 한반도가 바로미터다. 한국전쟁을 치렀던 남과 북은 역사적인 4·27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 양측 지도자끼리의 핫라인은 예고 없는 2차 회담으로 이어졌다. 오랜 적대국가인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악수했다. 한반도는 다시금 평화와 분열의 시험대에 놓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흐려 놓은 세계 질서는 재정립과 갈등의 기로에 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구심점이 없는 다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난민문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등이 뒤섞인 국제정세에서 제19회 세계지식포럼은 실종된 리더십 재건을 모색한다. 집단지성으로 대혼란을 돌파할 해안을 구한다.



반기문 Ban Ki-moon

제 8대 UN 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10월 UN 총회에서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16년까지 재직했다. UN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외교통상부 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외무부 미주국장, 외교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포브스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2위에 오르기도 했다.

H. R. 맥매스터 H. R. McMaster

제 26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는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역임했다. 34년간 미육군에 몸담으며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군인이다. 맥매스터는 1984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걸프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미국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NSC 보좌관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면서도 대북 선제타격은 ‘최후의 카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에드윈 풀너 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이다. 현재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맡고 있다.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으로서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산권 압박 정책인 ‘레이건 독트린’의 주요 지지자로 평가받는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인사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시카고대 교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미국의 대표적 학자다. 1960년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현대사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1986년에 펴낸 ‘한국전쟁의 기원’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38선 확정의 책임은 물론이고 단독정부 수립에 따른 남북분단 고착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티에리 몽브리알 Thierry de Montbrial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소장

티에리 몽브리알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설립자이자 소장이다. 2008년 세계정책회의(WPC)를 출범시켰다. 프랑스 국립공예원 명예교수이고, 프랑스 학사원 회원이다. 1974~1992년 에콜폴리테크니크 경제학부 학과장을 맡았고 1973~1979년 프랑스 외교부에서 정책기획 담당으로 근무했다.



Reinvigoration : Upgrade Your Life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이 인간의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기계와 기술에 인간의 역할과 위치를 내줘야 할 것만 같은 급격한 변화가 두렵기만 하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함’을 느낀다. 이럴수록 인간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창의성을 발현함으로써 삶을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다. 제19회 세계지식포럼은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는 전문가들을 모셨다. 인지과학, 교육, 창의력 개발 등 당장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역에서의 깊은 통찰을 보여 줄 전문가들이다. 이들에게서 인생의 비타민이 될 교훈을 들어본다.



벤 넬슨 Ben Nelson

미네르바스쿨 설립자 겸 CEO

벤 넬슨은 미네르바스쿨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다. 미네르바스쿨은 캠퍼스 없이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이뤄지는 혁신 대학으로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014년 개교 이래 아이비리그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벤 넬슨은 2005~2010년 스냅피쉬 최고경영자로 일하며 회사를 3억 달러에 휴렛팩커드(HP)에 매각했다.

프레이저 도허티 Fraser Doherty

슈퍼잼 창업자

프레이저 도허티는 14세에 첫 사업을 시작했다. 할머니에게 잼 만드는 법을 배운 후 이를 이용해 100% 천연 과일 잼을 제조하는 법을 개발했고 불과 2년 후 슈퍼잼이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도허티는 Beer52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Beer52는 세계 최대 규모 수제 맥주 클럽으로 15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혁신과 산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최고훈장(MBE)을 수여 받기도 했다.



영국남자 조쉬 Joshua Carrott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본명 조슈아 캐럿)는 2인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기 유튜버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국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두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흥미로운 점을 압축적으로 잘 짚어내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도 출연했고,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협력도 성사시키는 등 구독자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 아슬란 Ali Aslan

도이체벨레(DW) 앵커

알리 아슬란은 독일 공영방송국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TV)의 국제 토크쇼 ‘콰드리가(Quadriga)’의 진행자다. CNN, ABC, Channel News Asia 등 전 세계 유명 방송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아슬란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과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르가리타 마요 Margarita Mayo

IE비즈니스스쿨 교수

마르가리타 마요 교수의 전공은 조직행동론이다. 하버드대 풀브라이트 장학생인 마요 교수는 심리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친 후 조직행동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당신의 진실된 모습 보기(Yours Truly: Staying Authentic in Leadership and Life)’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Overstretch of One Asia

세계 미래의 중심은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의 성장은 전 세계의 번영이며, 아시아의 무질서는 전 세계의 혼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글로벌 리더십 공백에 아시아가 대응할 때다. 한반도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원 아시아(One Asia)'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중국은 진정한 세계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세안(ASEAN)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아시아가 원 아시아(One Asia)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분석과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아세안 기업인들이 세계경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자칭귀 Jia Qingguo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자칭귀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석학이다. 1985~1986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으로, 1997년에는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2001~2002년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CNAPS) 연구원도 지냈다. 현재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외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왕 리엔타오 Wang Liantao
샤오주(Xiaozhu) 공동설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

왕 리엔타오는 중국판 AirBnB로 알려진 주택공유업체샤오주(Xiaozhu)의 공동설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다. 그는 중국 온라인 생활정보서비스 간지(Ganji)와 중국 최대규모 모바일 광고 플랫폼 매드하우스의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야후 차이나의 북중국 지역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또다른 공동설립자인 천츠 (Chen Chi)를 만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중국 상하이 CEIBS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왕정화 Wang Zhenghua
춘추그룹 회장

왕정화는 춘추그룹의 회장이자 상해춘추여행사와 춘추항공의 창업자다. 말단 정부 기관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38세 나이에 상해춘추여행사를 설립했다. 2평 남짓 가옥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중국 전역에 2000여 개 지점을 둔 1위 여행사로 만들었다. 2004년 그가 출범시킨 중국 최초 민영 저가항공사 춘추항공은 오늘날 매출 1조가 넘는 초대형 항공사로 성장했다.

노자와 하지메 Hajime Nozawa
JTB종합연구소 사장 겸 CEO

노자와 하지메 사장은 1984년 일본교통공사(현 JTB)에 입사했다. 2012~2015년 트래블플라자유럽(JTB 유럽 본사) 사장 겸 CEO를 역임했다. 현재는 JTB종합연구소 사장과 릿쿄대 관광학부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게이오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게리 류 Gary Liu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 SCMP) 최고경영자

게리 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2017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다. 구글 출신의 30대 중반 대만계 미국인으로 전통 언론사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11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SCMP를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선도 언론사로 이끌고 있다. 류 CEO는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 MBA



INSEAD

The Business School
for the World®

INSEAD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11 세계 MBA 100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 매년 세계지식포럼에서 미니MBA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 교수들로부터 경영학의 진수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인시아드는 프랑스 외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등 모두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MBA입니다.



IE 비즈니스 스쿨

스페인 명문 비즈니스스쿨 IE스쿨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대학원입니다. 2017년 기준 IE는 29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28여국에 50,000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NYU STERN

뉴욕대 스텐 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HEC Paris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평가 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경영대학원 HEC는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CEO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清华经管学院
Tsinghua SEM | MBA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칭화대 MBA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저명한 경영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이론과 체계,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은 물론 올바른 가치와 윤리를 가르쳐 중국과 세계를 무대로 널리 활동할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Guanghua School of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대학원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과 경제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인 만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마경미디어센터 5층
전화 : 02-2000-2411-5 팩스 : 02-2000-2419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5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04627
Tel : +82-2-2000-2411-5 Fax : +82-2-2000-2419
E-mail : knowledge@mk.co.kr